

질병의 조기 발견

이경진

한국부제병연구소장

수 의사는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의 질병을 알 아낼까? 수많은 질병들이 소를 괴롭히고 때 로는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한다. 하지만 미리 관찰 할 수만 있다면 조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이제 소의 코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꼬리까지 관찰해 보자.

코는 흑색의 소만 아니면 비점막을 관찰할 수 있다. 비점막을 통하여 소의 빈혈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비점막이 창백하다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빈혈이 있는 것이다. 빈혈의 흔한 원인은 출혈 혹은 기생충성 질병 혹은 파이로플라스마(진드기에 의한 혈액 원충성 질병)등의 원인이 있으므로 구충제를 투여하거나 파이로치료(이는 산간지역의 진드기가 상존 하는 지역에서)를 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적혈구 수가 많은 소가 유량 등의 생산성이 좋으며 빈혈기가 있는 소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어린 송아지가 환절기에 콧물이 누렇게 나오거나 출혈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만일 코에서 피가 나온다고 가정하여 보자. 한쪽 콧구멍에서만 피가 나온다고 하면 외상에 의한 출혈

이므로 가벼운 출혈이며 양쪽 콧구멍에서 거품이 섞인 출혈이면 폐출혈이므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콧구멍에서 팔죽같은 분비물이 흘러 나온다고 한다면 최근에 빨을 자른 기억이 있나 살펴 보거나, 소가 머리로 다른 부위를 들이 받다가 상처를 통하여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전두동염(사람으로 치면 축농증)이라는 질병에 감염된 것이므로 빨리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호흡

기침은 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호흡기의 기도내에 있는 이물성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려는 생체 방어 기전중의 하나다. 물론 기침은 생체에 유리한 기능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심하면 감염성 질병으로 의심하여야 하며 기침의 강도는 후두부위의 염증시 제일 강하게 나타나며 폐로 염증 부위가 옮겨 갈수록 기침을 덜하게 되므로 관찰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기침만 진정되었다고 치료를 그만두었다가 낭폐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기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개체의 환경 혹은 외부 스트레스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었다는 증거이므로 환경과 스트레스의 개선과 저

항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렴등의 진행을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폐렴의 진행은 호흡수가 올라가고 고열이 나타나며 체중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폐렴의 치료를 장기간 해 주거나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으며, 종종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왕진을 해보면 측사 바닥의 환경상태가 불량하거나, 환기, 밀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환경 요인을 개선한 후에 치료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침흘림

소는 평상시에도 상당한 양의 침을 흘린다. 하지만 과도하게 침을 흘리게 되면 결국은 탈수가 되고 만다. 과도한 침흘림을 일으키는 질병은 구강내에 염증이 있거나 식도를 이물질이 막고 있는 식도 경색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필자는 풀과 같이 섭취된 뱀에게 교상을 입은 소에게서도 과도한 침흘림을 발견한 적도 있다.

호흡수

호흡이 빨라진 상태에는 호흡기 질환이니 과도한 출혈(특히 분만 직후 자궁내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된 혈액이 자궁안에 저류되었을 때) 혹은 중독, 일사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부패한 고구마, 혹은 고구마순을 먹임으로 해서 폐가 파열되어 나타나는 폐기종 등의 질병시 호흡수가 올라가므로 빨리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눈

집단으로 양쪽 눈에 염증이나 충혈이 오는 것은 "핑크 아이"라 불리는 전염병이나 전염성 비기관지염(IBR)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눈동자가 움푹 들어간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한 탈수이다. 물론 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수분을 빼앗기는 경우(설사)에도 물론 탈수로 봐야 한다. 분만 직후에 눈동자가 움푹하게 될 정도로 탈수되어 있고 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측 전위증에 제4위 염좌(꼬임)까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설사로 인하여 탈수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분 및 전해질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종종 포도당을 투여하는 낙농가를 볼 수 있으나 이는 탈수현상을 더욱 악

“ 앞가슴이 살찐 소처럼

둥글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창상성 심낭염의 초기증상일 경우이며
이때는 자석을 투여해야 한다. 이때에 강
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한번 자석을 먹인 소에게는 매년마다
자석을 먹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한번 위속으로 투여된 자석은
보통1년 혹은 6개월이 지나면 자석의
성질을 잃고 단순한 쇳덩어리에
불과 한 것이다. ”

화시키는 방법이므로 탈수시에는 포도당을 투여하면 안된다.

탈수가 되었을 때 투여하는 수액의 양은 어떻게 결정할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움푹들어간 눈이 특튀어 나오게 될 때 까지 투여하여야 하며 원인이 해소되고 나서라도 하루 이틀까지는 수액을 투여해주어 설사나 탈수로 인한 전해질의 교정을 완전하게 해 주어야 한다. 만일 혈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하 주사를 통하여서도 훌륭히 전해질 공급이 가능하므로 혈관 주사를 못 놓더라도 수액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턱과 앞가슴

턱에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방선균증을 대표로 한다. 소가 거친 조사료를 섭취하는 도중 입안에 상처를 입게되면 턱의 연부 조직이나 턱뼈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초기에 발견하여 수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치료하면 재발 없이 완치된다. 또한 턱뼈에 살이 찢겨서 부기가 있을때는 창상성 심낭염의 말기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앞가슴이 살찐 소처럼 둥글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창상성 심낭염의 초기증상일 경우이며 이때는 자석을 투여해야 한다. 이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한번 자석을 먹인 소에게는 매년마다 자석을



발을 등글게 내려 던거나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는 엉거주춤하면서 내려온다. 이러한 모든 소들은 자석을 먹어야 하는데 실제 정상적인 소의 1위 내에서 70% 까지도 이물질이 발견된다.

피부

피부는 털이 빠지거나 가려움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부병을 의심하여야 한다.

소에게는 전염성의 피부병이 많으며 비육우사는 가능

하면 쇠파이프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곳은 소가 출하된 후 자물소독을 하여 전염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군에 처음 피부병이 발생하면 철저히 격리 치료한 후 합사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가 갑자기 종대(커짐)된 것은 만져보아서 열감이 있는 것은 염증이며 열감이 없는 것은 피하 출혈로 인한 혈종이므로 선볼리 건드려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간지역에서 소의 등쪽에 볼록하게 올라온 것은 쇠가죽 파리가 소의 등쪽 피부에 알을 낳았으므로 쇠가죽 파리의 유충이 부화되어 날아가면 이상이 없으나 만일 압박하여 유충을 터트리면 알리지 증상을 유발 하기도 한다. 쇠가죽 파리는 매미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색깔이 노랗다. 발견하는 대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경험한 것 중 피부에 이상이 있었던 사례중 “피말이 병”(본 병에 대한 학술적인 질병 이름은 없으며 한우를 침놓던 분이 붙인 이름이다.)이라는 것을 몇번 보았다.

이 병의 증상으로는 피부가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목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으며 앞다리로 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사료를 먹는 동작이 불편하며 식욕에는 이상이 없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알리지 치료를 하면 된다.

이번호에는 소의 앞부분의 관찰요령을 살펴 보았다. 다음호에서는 뒷부분의 관찰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1)

〈필자 연락처 : 032-544-6771〉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번 위속으로 투여된 자석은 보통 1년 혹은 6개월이 지나면 자석의 성질을 잃고 단순한 쇳덩어리에 불과 한 것이다. 때문에 자석을 투여한 소에게는 매년 임신 말기를 선택하여 자석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창상성 심낭염의 증상이 있어 자석을 투여할 필요가 있어 자석을 투여 했다면 반드시 물을 많이 먹여 주어야만 자석이 제1위의 기저부위에 빨리 도착되어서 자석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자석을 투여한 후 가능하다면 3~5일간은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여 야만 자석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가 있다. 필자는 창상성 심낭염을 진단하여 자석을 투여한 후 매끼마다 소금을 강제 투여하여 소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좌측 앞다리

모든 소의 앞다리는 몸통에 가까이 붙어 있다. 하지만 창상성 위염이나 심낭염이 있거나 제 1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앞다리의 후두 부위(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들은 제 1위안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두 부위가 몸통쪽으로 향하면 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벌리고 있다가 외부에 사람이 나타나면 몸통쪽으로 바짝 붙이면서 경계를 나타내며 이때 주두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소는 멀리 도망가려고 하거나 반항하여 뒷발로 차려한다. 또한 이러한 소들을 축사에 계류 할 때는 뒷